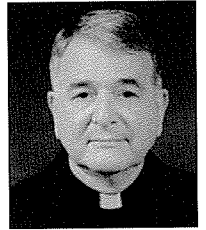


제12차 세계가톨릭 의과대학연맹회의

주제 : 가톨릭 의학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05. 5. 11~13)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

Most Rev. Emil Paul
Tscherrig, J. C. D., D. D.
Apostolic Nuncio in Korea

...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이번 회합의 주제는 “가톨릭 의학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주제에서 대체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비전에 바탕을 둔 의학교육에 관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육은 어떤 사회이든 가장 비중있게 취급되는 영역입니다. 예외 없이 가톨릭 교회도 교회사와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동료들은 다종교적 특성과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맞물려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점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피력할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적 차이가 우리를 갈라 놓고 분열한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가 보편교회 즉,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세대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가톨릭의 이념적 목표를 어떻게 사회의 일상에서 적절히 구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중략)

게시나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자신의 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라면 반드시 성화를 잘 수용하여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함께 신실한 사도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효율적으로 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염원하던 일체를 이루는 것이요, 인간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통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들여 그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미 지금 이곳에서 성삼위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Jn 11:25-26). 이 진리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보다 구체화 된 말씀은 “길ियो 진리요 생명”(Jn 14:6)입니다. (중략)

작고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回勅)²⁴ “진리의 광채”에서 진리가 대적해야 할 장애에 대해 적어 놓으셨습니다: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Jn 8:44)인 사탄의 꾀임에 빠져 저질러진 알 수 없는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진리의 하느님으로부터 눈을 떠나 우상을 향하고(cf. 1 Thes 1:9),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과 우상으로 맞바꾸도록(Rom 1:25) 유혹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도 어두워졌고 진리에 복종하려는 인간의 의지도 약해졌다. 그에 따라, 상대론과 무신론(cf. Jn 18:38)에 자신을 내던져, 진리에서 동떨어진 사람을 미혹하는 자유를 찾아 떠나 해마다.(n°1).”

의학 분야를 포함한 작금의 교육제도 대부분이 종종 국가와 시장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 수단에 이용되어지

고, 젊은이들은 특정사회의 목적에 맞추는 교육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톨릭 의학교육은 사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입장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톨릭 정체성과 인간 존재의 완전성과 거룩함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국제 사도 알현 조직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교황님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만남의 행사를 수행하면서 늘 의아스럽게 느꼈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 많은 청년들이 이 노인네에게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왜 그렇게 애정을 듬뿍 담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지난 번 로마에서 거행되었던 장례식에서도 참여자 중 청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어 볼 요량으로 교황님과 만난 한 젊은이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대답이었지요. “우리는 교황을 사랑해요. 그는 진실을 말하죠!”.

여러분은 교육자로서 이와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향후 십년 동안 삶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할 수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닌 삶을 통해 몸소 체험한 진리를 그들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학생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적 교육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개개인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고려하면서 인간을 정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탁월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로 인해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 받습니다. 교회는 생명에 대한 불가침권과 수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을 보호하는데 주님의 계명을 판단의 준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학 기술과 생물윤리의 발달,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의 급격한 진전에 대항하는 기준을 설정해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창조의 극치에 이르고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권세를 부여 받았지만 결코 신은 아닙니다.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수라도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구별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며, 진정한 자유란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숙명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지 인간됨의 조건을 인식하라는 함의입니다. 시편에서 ‘그를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cf. Ps 8:5)라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듯이 비록 우리가 신보다 못할 것이 없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Ps 90:5-6)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학 분야에서 가톨릭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Ac 10:38)라고 기술한 그리스도의 또다른 “얼굴”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고, 주린 자를 먹이며, 귀먹은 자, 눈먼 자,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며 온갖 장애를 치유하였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세 번이나 살리셨습니다. 몸에서 비롯된 것이든 영혼의 것이든 모든 인간적 고통을 그도 느끼셨습니다. 치유하면서 동시에 그는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진복팔단(the Beatitudes)²²⁾에서 잠시 세상에서 덧없는 생을 사는 동안 갖가지 고난으로 시험 받는 인생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이며 “정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며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Mt 5:3-11).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르라고 가르치는 일은 그들의 생명에의 봉사가 심오한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헌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생명에

의 봉사를 단순히 기술을 발휘하거나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 존재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성 마태오 복음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였을 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이 굶주리던 것을 보았나요? 언제 당신이 헐벗었고 병들었으며 옥에 갇혀 있었나요?—“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Mt 25:40)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톨릭 의과 과정을 가르치면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고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로마교황청 서신을 작성하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에 대한 글을 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욕이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안다..”고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난 자체도 구원 하셨습니다.”(n° 19). 죽음과 고난은 인간 존재에 있어 가장 불가사의한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아들이 죽음

과 고난을 면하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알기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통이 사랑을 주고 받는 원천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승리가 사망을 삼킬 때(cf. 1 Co 15:55) 최후의 말은 하느님께 귀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의학 교육 자체를 단순히 젊은 의료 인력이나 전문 의료진에게 “직업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영혼이 물질에 우선하고, 사람이 사물에 우선하며 우리가 기술에 우선한다는 인본주의적 문화를 양성하고 널리 전파하도록 도전을 가하여야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인용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진리의 광채”의 한 말씀으로 이 강론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를 모든 가톨릭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정의한 것이라 믿습니다. “창조주의 모든 영역이 진리의 광채를 널리 발할 것이며, 하느님의 형상을 본따 창조된 인간도 그러할 것이며 특별한 방식으로 발할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의 지성을 밝혀 깨우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여 주를 알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n° 1).

보람 있는 회합이 되길 기원하며 이 아름다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우정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의과 대학들과 병원, 의료 보건 센터들이 보다 폭 넓고 공고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우에게 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번역: 윤학식 사무국장(한국가톨릭의료협회)

주1) 회칙 (回勅) [라] litterae encyclicae [영] encyclical

전 세계 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적 사목교서를 말한다. 주로 교리적이거나 도덕적, 혹은 규율적 문제를 다룬다. 교회역사 초기부터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공식적 교황서한을 보냈으나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회칙은 주교의 의무를 다룬, 베네딕토(Benedictus) 14세의 (Ubi Primum)(1740. 13. 3)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칙이 교황의 사목적 권위를 표현하는 일반적 수단으로 정착된 것은 교황 비오(Pius) 9세부터 최근까지의 시기였다. 처음에는 고위성직자나 교황청에 우호적인 교회관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에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이들’로 그 대상을 넓혔다. 이 회칙을 위해서는 한 사람 혹은 일군의 학자들, 문서에 관한 비서관, 라틴어 서한담당 비서관 등이 동원된다. 대부분 라틴어로 발표되며 발표되는 언어의 첫 마디들을 따서 제목으로 정한다.

‘사목적’(司牧的)이란 말은 회칙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교황은 무류(無謬)이어야 할 교리적 정의를 공포하기 위하여 회칙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회칙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오늘의 사회, 윤리적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특별히 교리적이고 사회적이며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수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는 그 교리 및 내용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2) 진복팔단 (眞福八端) [라] Beatitudines [영] Beatitudes

그리스도의 ‘산상수훈’(山上垂訓, 마태 5:1-12)과 들에서 한 설교(루가 6:20-22)에 나오는 다가올 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 루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외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태오의 복음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8개(혹은 9개)의 정신적인 축복을 전하고 있다. 루가의 복음서에는 불행한 사람에 대한 4개의 징벌 예고가 뒤따르고 있다. 진복팔단은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덕을 그리고 있는데 규약성서(이사 32:20, 시편 1:1)와 신약성서(루가 12:37, 마태 13:16)에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자료: 한국가톨릭대사전

The 12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Medical Schools (May 11~13, 2005)

Theme : Catholic Medical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Dear Friends,

Your Congress treats the theme “**Catholic Medical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As the title itself indicates, you wish to discuss medical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vision of the person and of society. Education i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of any society and the Catholic Church has throughout his long history always paid great attention to education. Your Korean colleagues will be eager to inform you about the challenges education is at present facing within the multi-religious setting of their nation amid a rapidly changing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Yet whatever may separate or distinguish us from one another with regard to background and culture, there is one thing we have in common and which unites us, it is our faith and the fact that we are members of the Catholic, that is, Universal Church. Like every generation before us, we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how to put our Catholic ideals into practice in our Institutions.

In the Gospel of today, which is part of the so called priestly prayer of Jesus, the Lord prays to the Father that his disciples may be “**consecrated in the truth**”. Jesus himself gives an explanation of what he means with “truth” by saying: “Your (the Father’ s) word is truth”. It is in fact to proclaim this word that the Father sent his Son into the world.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the Son now is about to send his disciples into the world so that they may be witnesses to the truth (cf. Jn 17: 17-19). Their consecration in the truth is the positive aspect of holiness, while their not-belonging to the word is its negative side. The revelation or the Word of God is presented as the active instrument of their sanctification, which has to be assimilated by the disciple and practiced in daily life. That’ s how an effective commun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faithful disciple in Christ and through Christ with the Father in the Holy Spirit. This is the unity Christ desires, this is the communion between God and man Jesus is praying for.

Whoever believes in Christ by accepting his commandments participates therefore already here and now in the life of the Most Holy Trinity. For him or her the promise of Christ becomes a reality: “If anyone believes in me, even though he dies he wi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Jn 11: 25-26). This truth is therefore not the result of human intelligence or wisdom, but is revealed by God in his Son, the incarnated **Word of God,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n 14:6). For the time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promises his disciples another Advocate or Counsellor, who will remain with them for ever “that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 never receive since it neither sees nor knows him” (Jn 14: 16-17). Jesus includes into his prayer also those who through the preaching of the Apostles will believe in him. Yet he predicts at the same time that the world will hate them because it has already refused the word of the Father made visible in his Son. That’ s why the disciples will have to distinguish themselves by practicing a critical freedom towards the surrounding world, which however cannot mean neutral distance but must be prophetic mission.

In his encyclical “Veritatis Splendor”, the late John Paul II wrote this about the obstacles truth is confronted with: “As a result of that mysterious original sin, committed at the prompting of Satan, the one who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Jn 8:44), man is constantly tempted to turn his gaze away from the living and true God in order to direct it towards idols (cf. 1 Thes 1:9), exchanging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Rom 1:25). Man’ s capacity to know the truth is also darkened, and his will to submit to it is weakened. Thus, giving himself over to relativism and scepticism (cf. Jn 18:38), he goes off in search of an illusory freedom apart from truth itself” (n° 1).

I think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e most of **today’ s education systems**, including those in the medical field, are often utilized by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means of ideological manipulations to train young people according to the particular needs of society. Catholic Medical Education must therefore also take the risk of being prophetic, even if this should mean being politically incorrect. If there is a need to defend our Catholic identity and the wholeness and sanctity of the human person, we should not hesitate to take up this challenge, because it is

the truth which will make us free.

I had the privilege to collaborate, for 11 years, in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apostolic visits of Pope John Paul II. There was always one thing that intrigued me accompanying the Pope to the many meetings he had with young people: why do these youngsters care so much for this old man and why do they show him such an affectionate love? - Even on the occasion of his funeral mass in Rome the largest number of participants were young people. To get an answer I did a personal inquiry among the young people around the globe who attended the meetings with the Holy Father. The answers I received were surprising and can be summarized in this: "We love the Pope", they said, "because **he tells us the truth!**" - As educators you are in the same privileged position. You can teach your students many useful things for a decent future, yet you will be truly loved and remembered by them if you have the courage to tell them the truth not so much in the form of words but by the witness of your own life.

The Catholic tradition of education has always excelled by putting man at the center stage of her attention, considering each person's material and spiritual needs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Christ. It is from this basic assessment or truth, that Christian values receive their ultimate authority. The Church makes reference to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hen she defends human rights, including the inviolability of the right to life and its protection from conception to death. From this perspective must be also judged the new medical and bio-ethical developments and the rapid and promising advancements in the search for new cures and medicines.

In the eyes of God man is the crown of creation, but not a god who is empowered to decide independently from the Creator what is good and evil. Even a qualified democratic majority cannot put itself in the place of God. In teaching therefore the truth about God and man to young people, this basic distinction is important and should contribute to their understanding that true freedom consists in the acceptance of the will of Go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fatalism, but simply means recognizing our human condition. The truth is that, although we have been made little less than a god, as the Psalm so beautifully says, and are crowned with splendor and glory (cf. Ps 8:5), we still are "like grass, sprouting and flowering in the morning and dry before dusk" (Ps 90: 5-6).

Catholic Education in the medical field should however also contemplate another "face" of Christ, which the Acts of the Apostles describe in these words: "**He (Jesus) went about doing good**" (Ac 10:38). He healed the sick, consoled the afflicted, fed the hungry, freed people from deafness, from blindness, from leprosy, from the devil and from various physical disabilities and three times he restored the dead to life. He was sensitive to every human suffering, whether of the body or of the soul. And at the same time he taught, and at the heart of his teaching there are the eight beatitudes, which are addressed to people tried by various sufferings in their temporal life. These are "the poor in spirit" and "the afflicted" and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justice" and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justice sake", when they insult them, persecute them and speak falsely every kind of evil against them for the sake of Christ...(Mt 5:3-11).

Teaching young people to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will lead them to perceive their service to life as a profound human and **Christian commitment**, which is undertaken and carried out not only as a technical or professional activity, but also a form of **Christian witness**, one of dedication to and love for our neighbor. They will learn that service to the sick is at the same time service of God, because the Son of God has identified himself with every human being.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our achievements will be judged in this light. We read in the Gospel of St. Matthew: then the virtuous gathered for the last judgment will ask: when did we see you hungry and feed you? When did we see you naked, sick and in prison? - "And the King will answer: I tell you solemnly in so far as you did this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it to me" (Mt 25:40).

Finally, Catholic Medical Education should also introduce the students into the **Christian meaning of suffering and death**. The late Holy Father John Paul II wrote in his Apostolic letter *On the Christian Meaning of Human Suffering* : "One can say that with the Passion of Christ all human suffering has found itself in a new situation. And it is as though Job had foreseen this when he said: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n the Cross of Christ not only is the Redemption accomplished through suffering, but also human suffering itself has been redeemed" (n° 19). Suffering and death are two of the greatest mysteries of human existence. Knowing that God didn't spare his own Son from suffering and death, does not only reveal God's tender love for man, but discloses also the hope that human suffering can be transformed into a source of love received and love given. This means that life is always stronger than death and that the final word in history belongs to God when death will be swallowed up in

전하신 성지로, 전 세계에서 매년 600여만 명의 순례객들이 성모마리아와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고 벨라뎃다 성녀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자신들의 하느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미약하고 이기적이었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곳이다.

작은 마을에 숙박시설(호텔급)이 400여 개가 넘고 성모님을 모신 동굴바위가 순례객들의 손길에 의해 대리석처럼 윤기가 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올해에는 38번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기적은 의사들로 구성된 기적심의위원회에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현상이 나타났을 때 7가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이를 심의하고 교황청의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밟은 후에야 기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2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4일간 열린 이번 CICIAMS 총회의 주요 안건은 규정 개정, 기구조직 개편, 활성화 방안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초래되는 윤리문제와 가정공동체의 붕괴현상은 현 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CICIAMS로서도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절감하고 Ethics committee 활동을 강화하고 Healthy family committee 를 두는데 뜻을 모은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시아 지역 회원 국가들의 협회활동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톨릭의료협회 출범과 협회의 설립목적 및 기대되는 역할들을 소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총회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CICIAMS 회원 국가들이 젊은 세대의 회원 수 감소현상과 재정난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활기찬 출범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평화롭고 성령 가득어린 은총의 마을 루르드에서 당신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의지를 모아 설립한 한국가톨릭의료협회를 당신 뜻에 맡겨드리오니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협회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

▶10p에서 이어짐
victory (cf. 1 Co 15: 55).

Catholic Medical Education can therefore never limit itself to a simple “on the job training” of young medical personnel or professionals. It is also challenged to produce and **spread a humanistic culture in which the primacy of the spirit over matter** is affirmed, people over things, ethics over technology. Let me end with the opening words of the already cited Encyclical “Veritatis Splendor”, which I believe define the ultimate purpose of any Catholic education: “The splendour of truth shines forth in all the works of the Creator and, in a special way, in the human person, created in the image of and likeness of God. Truth enlightens human intelligence and shapes people’s freedom, leading them to know and love the Lord” (n° 1).

I wish you a fruitful meeting and may your stay here in the beautiful land of the “morning calm” also knit bonds of friendship and trust among all participants in order to foster and ever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all Catholic Medical Universities, Hospitals and healthcare centers in the world. May the Good Lord bless and protect you and your work. Amen. 🙏